

‘파리로 간 예술가들’전에서 ‘물방울 작가’ 김창열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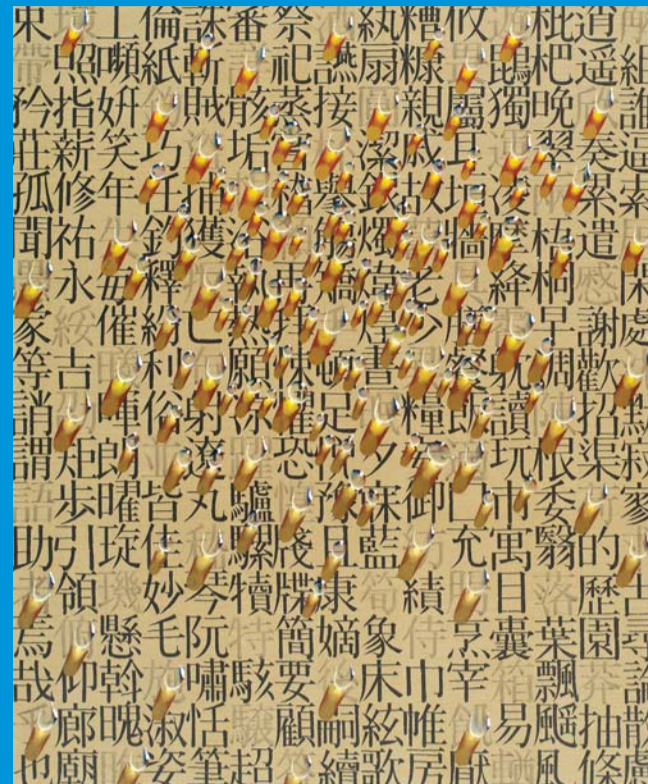
(1929~2021)



3월 31일까지 하정웅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소장작 전시
김환기·이응노·김홍수 등
작가 23명, 회화작품 50여점



김창열 작 '물방울' (2013)



김창열 작 '회귀' (2013)

시 파리에서 유학하거나 작업 세계를 펼쳐보이는 것은 많은 예술가들의 로망이었다. 해방 이후 '최초의 파리 진출 미술가'는 김홍수와 남관이었다. 또 기성 작가들 중 파리에서 가장 먼저 개인전을 열었던 작가는 1956년에 파리로 건너간 김환기였다. 파리로 진출한 작가들은 서로 친교를 맺으며 작업을 전개했고 후일 한국 현대미술의 주역이 됐다.

국내 작가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김환기의 작품으로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푸른색 바탕에 점들을 묘사한 대표작 '무제' (1966)와 종이에 펜으로 그린 드로잉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역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선의 흐름이 인상적인 'From line'과 리듬감이 돋보이는 유화 작품 'From point N0202', 'East Winds-7' 등의 작품이 나왔다.

파리에서 동서 미술의 융합을 시도하며 '문자추상'을 선보인 이응노 화백의 작품으로는 역동적인 느낌의 '군상' 시리즈와 '문자 추상'을 만난다. 그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국가폭력과 민중의 희생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폭력을 해체한 자유를 향한 의미로 군상 연작을 제작했다.

한국 추상미술의 한 축인 박서보 작가의 작품과 '누드'와 한국적 이미지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인기를 모은 김홍수 화백의 '꿈포지션(고독)', '반가 사유상·통일', 박영선의 '독서하는 여인'과 '누드', 이용환의 '몽수리 풍경' 등 구상 작품들도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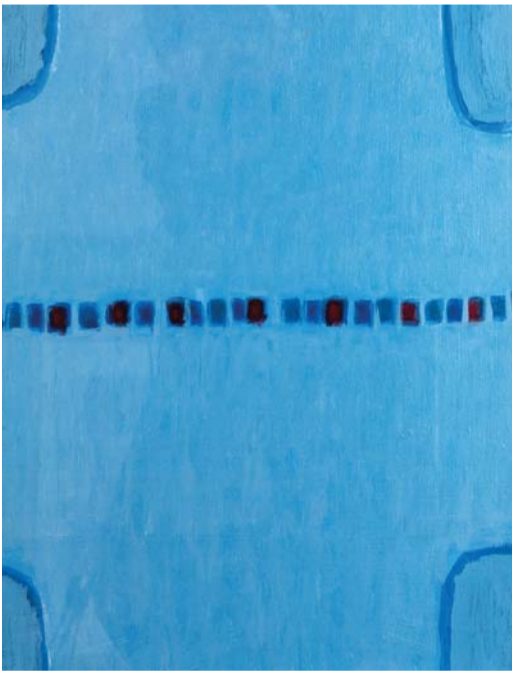
동양적 이미지를 담은 추상미술로 1958년 파리 회관에 등단한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이성자 화백의 작품과 지난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프랑스 사르트르 대성당 종교 참사회회의실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작가로 선정되는 등 현재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방해자 작가의 회화작품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시적인 이미지가 돋보이는 변중하의 '둔 키호테', '평화', 권영우, 이만인, 백영수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우환 작 'From line' (1974)



김홍기 작 '무제' (1966)

처음 그의 그림을 보게 되면 자연스레 작품 앞으로 다가서게 된다. 화폭에 등장하는 물방울이 실제인 듯 작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영롱하게 맺혀 있는 물방울은 금방이라도 뚝 떨어질 것만 같다.

'파리로 간 예술가들'전이 열리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그림이 바로 5일 92세 일기로 타계한 '물방울 작가' 김창열 화백의 작품이다. 그의 작품들은 제주도 김창열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지만, 이번에 광주에서도 대표작을 접할 수 있는 만큼 미술관 나들이에 나서도 좋을 것 같다.

푸른색 배경 위에 걸린 김화백의 대표작 두 점은 변화해온 그의 작품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13년 작 '물방울' (195x160cm)은 대형 화폭에 단 '두방울'의 물방울만이 맺혀 있다. 같은 크기의 작품 '회귀' (2013)는 다양한 한자와 수많은 물방울이 어우러져 대비된다. 시립미술관은 현재 판화와 회화 작품 10점을 소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열리고 있는 '파리로 간 예술가들' (3월 31일까지)전은 미술관 소장 작품, 그중에서도 하정웅컬렉션 중심으로 1950년대~1970년대 서구미술(프랑스)과 직접 접촉하며 작품 활동을 전개한 근현대미술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기획이다.

김창열 화백은 1972년 프랑스 파리 '살롱 드 메'전에서 '물방울' 작품을 처음 선보인 후 50여년 가까이 '물방울'에 전념하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왔

다. 그는 신안 출신 추상미술의 거장 김환기 화백과도 인연이 깊다. 대학 은사였던 그의 주선으로 1965년부터 4년간 뉴욕에 머물며 록펠러재단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고, 백남준의 도움으로 1969년 제7회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에 참가한 후 이를 계기로 파리에 정착했다.

이번 전시에는 23명 작가의 회화 작품 50여점이 나왔다. 작고·생존 작가를 망라한 이번 전시 참여 작가 한명 한명은 모두 한국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이들도다.

한국회가의 서구 진출은 19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특히 많은 미술인들이 파리로 진출하며 한국미술의 국제화가 탄력을 받았다. 오래전부터 매혹적인 꿈과 성공을 상징하는 예술의 도

시가 주는 감동 고재중 시인 시에세이 '시간의 말'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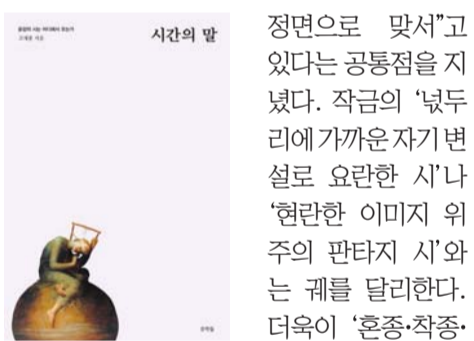
"시가 좋아서 여러 시인들의 시를 읽었다. 그들이 주는 감동으로 나는 나의 팍팍한 삶을 견뎌 왔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도 지상의 보석 같은 시를 읽으며 또 대쪽을 깎아 삶에 피를 새기는 삼정으로 몇 줄의 시도 쓴다."

고재중 시인이 시에세이집 '시간의 말' (문학들)을 발간했다.

저자는 인식의 깨달음과 충격을 주고, 타인과의 공명을 통해 감동을 자아내는 시 위주로 선별을 했다. 또한 여러 잡지에 소개하고 강의한 원고를 토대로 시를 풀어냈다.

책에는 독자들에게 익숙한 시인들이 등장한다. 1부에서는 문태준·황지우·기형도·정호승·김중삼·안도현·손택수 등의 시가 나온다. 제2부에서는 이시영·신덕룡·김병호·장욱환·장석남·오태환 등의 시를 살펴본다. 제3부에서는 신용목·조용미·김명인·백석 등의 시를 읽고 마지막 4부에서는 김용택·정일근·김사인·고형렬·최두석·김준태·이윤화 등의 시를 소개한다.

고재중 시인이 읽어낸 시는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대답하기가 끔찍할지라도 거기에



로움이란 이름으로 난무는 시'들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

저자는 "송산 선사야 말한 '세계일화(世界一花)' 곧 세계가 하나의 꽃이란 말이 있다"며 "한 편의 시가 마음의 사막을 우주의 별자리로까지 환하게 밝힐 수 있다는 사실도 나는 잘 안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 출신 고재중 시인은 1984년 '실천문학'에 작품을 발표하며 등단했으며 '재벌', '사람의 등불', '꽃의 권력' 등의 시집을 펴냈으며 신동엽문학상, 영광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온택트 공연 페스티벌' 13일까지 온라인 감상



지난해 문화예술계는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작품들의 제작, 공연, 출판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ACC에서 기획·제작한 공연은 무관중으로 진행된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선보이지 못한 공연들을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 축제가 13일까지 열린다.

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박태영)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ACC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ACC 온택트 공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먼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무대에 올라 호평을 받은 '시간을 질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또한 K-월드뮤직과 남도국악을 조명해 본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예술가 17팀과 축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소개된다.

영상으로 첫 선을 보이는 창작자 연극 '접시꽃길 85번지'는 가족애를 그렸으며 시민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된 'ACC시민오케스트라'는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열정을 보여준다.

레지던시 씨어터에 참여한 단체들의 실험성 돋보이는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막이 오르면', '중간자 V의 황소: 지구에 침묵은 없네', '캐스케이드 패시지', '어둠을 만나러 가는 길' 등이 그것이다. 일부 공연은 영어字幕을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또는 콜센터(1899-5566)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